

도서상품권 유통의 한 현상·2

지난해 4월부터 발매되기 시작한 도서상품권이 1년만 남짓한 사이에 130만장(발행고 65억원)이 넘게 팔려나갔다고 한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 새로운 도서보급 형태로 정착돼가고 있음을 반증해주기 때문에 출판계로서 어떤 의미로서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발행사의 얘기에 따르면 회수율이 85%에 달한다고 하는데 상품권을 이용한 도서구입비를 산정해보면 그 액수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도서상품권이 없었더라면 다른데로 쓸렸을 돈이 책사는 데로 적잖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다.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명절 때나 행사의 선물로 도서상품권을 다량 구입해간다는 사실은 도서상품권이 새로운 선물로 애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점에서 도서상품권은 “책을

선물로 주고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독서인구의 변화와 출판문화의 진작을 위해” 발행되었던 애초의 취지에서 그다지 어긋남이 없이 제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도서상품권의 유통을 둘러싸고 그다지 달갑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 내용인즉 책에 한해서만 사용하게 돼 있는 도서상품권이 책 이외에도, 가령 지우개나 연필이라든지 수첩과 같은 문구류는 물론 비디오테이프나 필름 등 잡화에 이르기까지 두루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내의 몇몇 중·대형서점들에서는 지금도 5천원짜리 도서상품권 한 장이면 5천원어치의 문구용품을 살 수 있다. 물론 몇몇 서점에서는 “도서상품권은 책만 살 수 있지 다른 것은 안됩니다”

다”하고 친절하게 ‘원칙’을 일러주기도 하지만, 또다른 몇몇 서점에서는 도서상품권을 이용한 ‘非도서’의 구입에도 “20% 이내의 환불” 원칙을 어김없이 적용하고 있다.

해당서점 관계자의 말대로 “책을 사고 남은 금액으로 문구류를 사고자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나마 납득의 여지가 있겠으나 실제로는 ‘남은 액수’에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본다. 도서상품권이 금지된 지 15년만에 부활되기까지는 갖은 우여곡절이 있다. 발행주체의 문제라든가 정산요율의 문제와 같은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출판·서적계가 힘을 한데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독서인구가 확산되고 출판문화가 보다 활성화하는데” 도서상품권이 한몫을 감당해내리라는 커다란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된 파행적 운영이 계속된다면 물리적 손실 이상의 손실이 출판계로 돌아올 것 같다. — 정혜옥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세계 4대 신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르몽드」지의 칼럼니스트로, 비교문학자로 명성을 떨친 로베르 에스카리빠가 지난 69년 출판한 「책의 혁명」은, 책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시도한 고전으로 일컬어진다. 그전의 이 분야 저서가 단편적이었던 것에 반해, 작가와 독자 그리고 도서유통의 현상인 서점과의 관계 등을 실증적인 통계와 아울러 명쾌하게 분석한 이 책은 책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에 차분히 접근하고 있다.

책의 정의에서 출발해 세계의 도서생산과 주요 교류형태 및 출판의 딜레마 등 책과 관련된 다각적 관심의 결과물인 「책의 혁명」은, 미래사회 속에서의 책의 역할을 예견하고 있어 비단 출판전문가뿐만 아니라 미래가 궁금한 일반인들의 정서에도 맞닿아 유익한 책으로 읽힌다. 번역본(임문영 옮김, 보성사)가운데 일부분을 발췌해 여기에 소개한다.

■인쇄된 책에서 ‘베스트셀러’까지 인쇄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뚜렷했지만 기회가 무르익었을 때에만 그 효과가 나타났다. 곧 기술의 변혁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때라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동차의 발달에 있어서 타이어와 포장도로가 꼭 필요한 것처럼 인쇄의 발달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종이는 12세기 중엽 유럽에 소개되기 1천여년 전에 이미 중국에서 알려져 있었다.

유럽에 소개된 당시에는 종이의 질이 튼튼하지 못한 것을 우려한 행정당국에 의해 냉대를 받았다. 같은 여건 아래서 활자인쇄는 시간-2,3년-을 훨씬 단축해주었다. 시대는 바뀌게 되었고 그리하여 새로운 사회적 상황은 인쇄를 연구하고 발명하기를 요구했다.

사실상 인쇄는 그 용도에 가장 적합한 26개의 알파벳 문자로 된 언어를 유럽지역에서 서로 만날 수 있었고, 더욱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급속한 발달 중에 있는 문명국들과 접할 수 있었기에 한층 더 번성하였다. 그리하여 기록된 자료의 보급은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낳기 시작했다.

아마도 인류역사상 가장 훌륭한 것으로 생각되는 발명이, 평범하게도 초기의 인쇄업자들에게는 단지 책의 복사를 촉진시키고 체제를 개량하며 원가를 절감하는 편리한 방법인 것으로만 인식되었다. 책의 활판인쇄, 제작 및 판매에 있어서 당시 인쇄업자들의 관심사는 주로 상업적인 수익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인쇄물이 잘 팔릴 것처럼 보이므로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종교도서, 소설, 일화집, 기술편람 및 요리책 같은 것이 이 실리적인 사업가들의 영업목록 가운데 빼대를 이루는 것이었다.

사업의 성공은 업자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웃돌았다. 1454년 독일의 도시 마인츠를 시발점으로 1464년 로마, 1470년 파리, 1474년 바렌스(스페인의 도시), 1476년 런던에서 인쇄된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문맹자로서 1억이 조금 안되는 인구를 가진 당시의 유럽에서 인구나블라(1450년과 1500년 사이에 인쇄된 책)의 수가 2천만부라 추정한다.

안토니오 테 멘도사총독이 새 스페인인 멕시코에 책을 도입한 1530년쯤 아메리카대륙에서도 책은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중략)

18세기 영국은 유럽에서 문맹자가 제일 적고 출판이 번성한 나라였으나 가장 인기가 있는 책 「팜플라」(영국최초의 소설이라 일컬음), 「조셉 앤드류」(영국소설의 비조)조차도 몇천부 이상을 팔지 못했다. 프랑스에서의 인쇄부수는 매우 적었다. 볼테르의 경우-진지한 책을 읽는 독자는 50명이고, 오락책을 읽는 독자는 500명이다-가 확실히 과장된 말이지만 책을 읽는 사람들이 「문학」 또는 문자문화계의 소귀족사회를 구성한 것은 사실이다.

이 귀족사회는 국제적인 성격을 띠었다. 문예작품의 소유에 대한 협약이 없었으므로 해적출판이 발달했는데 그것은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을 일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유익한 것이

있었다. 예컨대 미국의 출판은 독립한 뒤 영국의 출판업에 기생함으로써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들의 상업적인 전통이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암스테르담이나 리옹과 같은 도시들은 몇세기동안 지식인들을 위한 국제적인 도서보급의 중심지였다. 「신곡」이 유럽지역을 휩쓰는 데는 4세기 이상이 걸렸다. 「돈키호테」는 20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5년으로 충분했다. 대체로 대역섯개의 주요언어가 문학세계를 나누어 지배했고, 문학인들의 세계적인 공동체意識은 18세기에서 보다 강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러나 귀족적 세계주의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책은 제4의 변혁, 곧 기계화에도 치달고 있었다. 기계화의 전조는 백과전서파 시대에서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다. 15세기에서처럼, 새로운 사회계층, 특히 소시민층이 독서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들을 고려하지 않고 제외시켰던 체제에 대한 책을 요구했다. 독서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요구는 출판물 발달의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였지만 여전히 그 발행부수는 보잘것 없었다. 점점 커가는 시장을 마주하여 출판과 서점은 면모를 새롭게 했으며 초기의 자본주의기업은 그들의 유통구조에 책을 통합시켰다. 따라서 출판업자는 인쇄업자와 판매업자들의 역할을 극소화시키면서 굴지의 기업인으로 등장했다. (다음호에 계속)

출판저널

통권 제116호 / 1992년 11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蕪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攸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공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원칙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沐	金榮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慎鍾燮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球漢	李瑛萬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毅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燦鍾	鄭雲瑛	鄭晉錫
鄭鍾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康
韓相慶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1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